

보도자료

2014년 4월 23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박진희 과장(☎2110-1280)
편성평가정책과 임기수 사무관(☎2110-1284) kisoolim@kcc.go.kr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 협의체」 가동

- 방송사, 유통사업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첫 회의 23일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프로그램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SMMS : Smart Metadata Management System, 이하 'SMMS')* 구축을 위한 유통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SMMS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메타데이터)를 제공받아 표준정보로 변환하여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유통 활성화 협의체」는 방통위 라봉하 기획조정실장과 서강대 현대원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KBS, MBC, SBS, EBS, CJ, 종편PP, 케이블TV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티빙, 폭 등 방송 콘텐츠 유통 관련 사업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동 협의체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유통 시 사업자마다 장르, 줄거리 등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정보를 다르게 제공하여 원활한 유통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주는 SMMS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유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6월까지 유통정보 표준을 확정하고, 12월까지는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KBS, MBC,

SBS, EBS, 종편, TvN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제목, 시놉시스, 연출자 등 유통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하고, 시스템에서는 폭, 판도라, IPTV 등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유통정보를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게 된다.

향후 유통사업자로부터 VOD 다운로드 수, 인터넷 클릭 수, 이용자 행태정보 등을 제공받아 통합시청률 산정을 지원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개방을 통해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정보, VOD 시청률 정보 등을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의 공동의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라봉하 기획조정실장은 “SMMS 구축 시 방송사 및 콘텐츠 유통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SMMS) 구축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개최(안) 1부. 끝.

<붙임>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SMMS) 구축 협의체 구성

1. 개요

- SMMS 구축·운영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2. 구성 방안

- 학계, 연구기관, 방송사, 유통사업자 등 19명으로 구성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라봉하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과 현대원 교수를 공동의장으로 함

3. 운영

- SMMS 구축·운영 및 활용방안 마련 : 4~10월

※ 1차 회의 개최 : 4.23.(수) 16:00 방통위 대회의실

4. 협의체 구성(안)

분야	소속	성명	직위	역할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라봉하	실장	의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국장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과장	위원
학계전문가	서강대학교	현대원	교수	의장
	서강대학교	이수영	교수	위원
	인천대학교	이수범	교수	위원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TA PG606 의장	서태실	박사	위원
방송사업자	CJ E&M	백승룡	팀장	위원
	KBS	박진우	부장	위원
	MBC	방성철	부장	위원
	SBS	박종진	팀장	위원
	EBS	이재우	차장	위원
	SkyLife	류신호	팀장	위원
	ollehTV	장대규	팀장	위원
온라인 유통사업자	PANDORA	최형우	대표	위원
유료방송 협회	IPTV 협회	정원조	부장	위원
	케이블TV 협회	신호철	팀장	위원
방송프로그램 정보	EPG	이정연	부사장	위원
사업수행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김현중	팀장	위원

※ 추후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 참여 확대 예정